

2027
중2-1
비상(박현숙)

2027 중2-1 비상(박현숙) | 2(1)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기출

이 서적은 '저작권법'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예상 출제 유형

해당 단원에서는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장에서 이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능력을 파악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. 또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장 성분의 변화와 '-아지다/-어지다', '-되다', 피동 접미사(-이-, -히-, -리-, -기-)의 결합 양상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 아울러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차이를 바탕으로 조사의 쓰임을 구분하거나, 인용 표현을 바꿀 때 나타나는 대명사, 시간 표현, 종결 어미의 변화를 분석하는 문제도 비중 있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.

1. 다음 중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문장이 아닌 것은?

- ① 세용이가 회장으로 뽑혔다.
- ②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어졌다.
- ③ 사자가 사냥꾼에게 잡혔다.
- ④ 토끼가 호랑이에게 먹혔다.
- ⑤ 엄마가 아이를 안았다.

2. <보기>의 ㉠, ㉡, ㉢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- ㉠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.
- ㉡ 얼음이 녹았다.
- ㉢ 이 편지는 많은 사람에게 읽혔다.

- ① ㉠의 능동문은 '경찰이 도둑을 잡았다'이다.
- ② ㉠은 피동 접미사 '-히-'를 사용하고 있다.
- ③ ㉡은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것이므로 피동 표현이다.
- ④ ㉢은 주어인 '편지'가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문장이다.
- ⑤ ㉢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㉢의 주어는 목적어가 된다.

3. 피동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을 <보기>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?

<보기>

- ㄱ. 드넓은 바다가 보인다.
- ㄴ. 동생이 유리창을 깬다.
- ㄷ. 아빠가 동생을 안았다.
- ㄹ. 어려운 문제가 잘 풀렸다.
- ㅁ. 그 물건은 자주 사용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ㄴ, ㅁ
- ③ ㄷ, ㄹ
- ④ ㄴ, ㄷ
- ⑤ ㄹ, ㅁ

4. <보기>의 ㉠ ~ ㉣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- ㉠ 사냥꾼이 여우를 잡았다.
- ㉡ 내가 모기에게 물렸다.
- ㉢ 친구의 말이 믿겨지지 않는다.
- ㉣ 나는 광활한 바다를 보았다.
- ㉤ 오누이가 호랑이에게 쫓기었다.

- ① ㉠: '사냥꾼'이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문장이다.
- ② ㉡: 피동 접미사 '-리-'가 사용된 문장이다.
- ③ ㉢: 이중 피동으로 피동 접미사 '-지-'와 '-어지다'가 사용되었다.
- ④ ㉣: 피동 접미사 '-이-'가 사용된 피동 표현이다.
- ⑤ ㉤: 주어인 '오누이'가 행위를 자기 힘으로 하는 문장이다.

5. <보기>를 참고할 때, 피동 표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주어를 부사어로,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면 된다. 서술어는 동사에 피동 접미사 ‘-이-/-히-/-리-/-기-’를 붙이거나, 또는 ‘-아지다/-어지다’를 붙이면 된다. 일부 명사에 ‘-되다’를 더해서 만들기도 한다.

- ①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혔다.
- ② 옷이 모서리에 걸려 찢어졌다.
- ③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렸다.
- ④ 법안이 드디어 가결되었다.
- ⑤ 민지가 우리 반 회장으로 뽑혔다.

6. <보기>의 상황에서 ㉠과 ㉡의 의미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(식당에서 손님이 식탁 위가 지저분하다고 종업원에게 말하는 상황)

㉠ 손님: (종업원에게) 여기 식탁을 잘 안 닦았네요.

㉡ 손님: (종업원에게) 여기 식탁이 잘 안 닦였네요.

- ① ㉠은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 ㉡에 비해 주체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는다.
- ② ㉡의 주어는 ‘종업원’이며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.
- ③ ㉠은 ㉡과 달리 식탁을 닦아달라고 요청하는 의미를 가진다.
- ④ ㉡은 행위를 한 주체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.
- ⑤ ㉡은 ㉠과 달리 종업원의 책임을 부각한다.

7. 다음 중 잘못된 피동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?

- ① 찢겨진 종이의 글씨는 알아볼 수 없었다.
- ②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이 나를 괴롭힌다.
- ③ 쓰여진 성금의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.
- ④ 그는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불려졌다.
- ⑤ 그려진 그림의 여인은 정말 아름다웠다.

8. <보기>의 ㉠ ~ ㉣ 중 문장 성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능동문: ㉠사냥꾼이 ㉡토끼를 ㉢잡았다.
 피동문: ㉣토끼가 ㉤사냥꾼에게 잡혔다.

- ① ㉠은 능동문의 주어로, 피동문에서는 부사어인 ㉣으로 바뀐다.
- ② ㉡은 능동문의 목적어로, 피동문에서는 주어인 ㉣로 바뀐다.
- ③ ㉢은 능동문의 서술어로, 피동문에서는 피동 접미사 ‘-히-’를 통해 피동의 뜻을 더한다.
- ④ ㉣은 피동문의 주어이며, 능동문에서 동작을 당하던 대상이다.
- ⑤ ㉤은 피동문의 목적어로, 반드시 문장에서 생략되어야만 한다.

9. <보기>의 ㉠과 ㉡에 공통으로 사용된 피동 표현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㉠ 나뭇가지가 눈에 꺾어졌다.
 ㉡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어졌다.

- ① 명사 뒤에 ‘-되다’를 붙여 만들었다.
- ② 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‘-기-’를 붙여 만들었다.
- ③ 서술어에 ‘-아지다/-어지다’를 붙여 만들었다.
- ④ 피동 접미사 ‘-이-’와 ‘-었-’을 더하여 만들었다.
- ⑤ 피동 접미사에 ‘-어지다’를 더하여 만들었다.

10. 다음 중 이중 피동 표현이 사용되어 어색한 문장은?

- ① 운동장 너머로 산이 잘 보인다.
- ② 건물이 사람들에 의해 복구됐다.
- ③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.
- ④ 도둑이 시민들에게 결국 붙잡혔다.
- ⑤ 아이가 엄마 품에 포근히 안겼다.

11. <보기>의 상황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뉴스 앵커: “이번 태풍으로 인해 많은 가옥이 침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.”

- ① 태풍의 위력을 과장하여 시청자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
- ② 가옥을 침수시킨 주체인 태풍을 비난하기 위해
- ③ 사실을 전달할 때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
- ④ 뉴스에 사용되는 문장의 길이를 늘이기 위해
- ⑤ 가옥이 스스로 침수되었다는 능동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

12. 다음 문장 중 피동 표현이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?

- ① 형에게 팔이 꺾였다.
- ② 범인이 드디어 구속되었다.
- ③ 아기가 엄마에게 엷혔다.
- ④ 짐들이 수레에 실려 온다.
- ⑤ 나는 어제 기분이 아주 좋았다.

13. <보기>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정답 2개)

<보기>

- ㉠ 내가 모기에게 물렸다.
- ㉡ 나는 술래에게 쫓기고 있다.
- ㉢ 아빠가 동생을 안았다.
- ㉣ (자신이 접시를 깨고 나서) 선생님, 접시가 깨졌어요.

- ① ㉠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‘모기’가 주어가 된다.
- ② ㉡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‘술래에게’가 ‘술래’로 바뀐다.
- ③ ㉢은 주어가 행위를 스스로 하는 문장이다.
- ④ ㉣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으려는 표현이다.
- ⑤ ㉠과 ㉡은 동일한 피동 접미사를 사용하고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. 정답 ⑤

주어인 '엄마'가 자기 힘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능동문이다.

- ① 피동 접미사 '-히-'가 사용되었으므로 피동문이다.
- ② '-어지다'가 사용되었으므로 피동문이다.
- ③ 피동 접미사 '-히-'가 사용되었으므로 피동문이다.
- ④ 피동 접미사 '-히-'가 사용되었으므로 피동문이다.

2. 정답 ③

주어인 '얼음'이 동작을 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동 표현이 아니다.

- ① ㉠은 피동문으로 이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'도둑'은 목적어로, '경찰'은 주어로 변하므로 적절하다.
- ② '잡았다'에 피동 접미사 '-히-'가 사용되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.
- ④ 피동 접미사 '-히-'가 사용된 피동문이므로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문장이다.
- ⑤ ㉡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'많은 사람이 이 편지를 읽었다.'가 되므로 적절하다.

3. 정답 ④

ㄴ. 주어인 동생이 유리창을 깨 행위를 한 것으로 능동문에 해당한다.

ㄷ. 주어인 아빠가 동생을 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능동문에 해당한다.

- ㄱ. 피동 접미사 '-이-'가 사용된 피동 표현이다.
- ㄹ. 피동 접미사 '-리-'가 사용된 피동 표현이다.
- ㅁ. '사용'이라는 명사에 '-되다'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다.

①, ②, ③, ⑤ 피동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을 고른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.

4. 정답 ②

'물다'에 피동 접미사 '-리-'가 사용된 피동 표현이

다.

- ① 주어인 '사냥꾼이' 자기 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능동문이다.
- ③ 이중 피동으로 피동 접미사 '-기-'에 '-어지다'를 더해 피동 표현을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다.
- ④ 피동 접미사가 사용되지 않았다. '보다'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'-았-'이 사용된 표현이다.
- ⑤ 주어인 오누이가 호랑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피동문이다.

5. 정답 ③

피동 접미사나 '-아지다/-어지다', 명사에 '-되다'가 사용되지 않았다. '버리다'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'-었-'이 붙은 형태이다.

- ① 피동 접미사 '-히-'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다.
- ② '-어지다'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다.
- ④ '가결'이라는 명사 뒤에 '-되다'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다.
- ⑤ 피동 접미사 '-히-'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다.

6. 정답 ④

㉠은 피동문을 사용함으로써 행위를 한 주체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는다.

- ① ㉠은 능동문으로 행위의 주체인 종업원의 책임을 부각한다.
- ②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, ㉠의 주어는 '식탁'이다.
- ③ ㉠과 ㉡ 모두 식탁을 닦아달라고 요청하는 의미를 가진다.
- ⑤ 종업원의 책임을 부각하는 것은 ㉠이다.

7. 정답 ⑤

'그려진'은 '그리어진'으로 '그리다'에 '-어지다'가 결합한 표현이다. 이중 피동이 아니다.

- ① '찢겨진'은 피동 접미사 '-기-'에 '-어지다'가 결합된 이중 피동이다.
- ② '잊혀지지 않는'은 '피동 접미사 '-히-'에 '-어지다'가 결합된 이중 피동이다.
- ③ '쓰여진'은 피동 접미사 '-이-'에 '-어지다'가 결합된 이중 피동이다.
- ④ '불러졌다'는 피동 접미사 '-리-'에 '-어지다'가 결합된 이중 피동이다.

8. [정답] ⑤

㉞은 피동문의 부사어이며, 반드시 생략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.

① 능동문의 주어인 '사냥꾼'이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뀌었으므로 적절하다.

② 능동문의 목적어 '토끼'가 피동문의 주어로 바뀌었으므로 적절하다.

③ '잡았다'에 피동 접미사 '-히-'가 붙어 피동사 '잡혔다'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.

④ 피동문의 주어는 능동문의 목적어였던,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다.

9. [정답] ③

㉠의 '꺾어졌다'와 ㉡의 '풀어졌다'는 각각 '꺾다'와 '풀다'에 '-어지다'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.

① '-되다'가 결합한 명사 형태의 단어는 찾을 수 없다.

② '-기-'라는 접미사가 사용된 단어는 찾을 수 없다.

④ '-었-'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피동 접미사가 아니며 피동 접미사가 사용된 것이 아니다.

⑤ '꺾어졌다'와 '풀어졌다'는 이중 피동이 아니라 '-어지다'가 한 번 쓰인 형태이다.

10. [정답] ③

'믿겨지지 않는다'는 '믿-+-기-+-어지다'의 형태로 이중 피동이 사용되었다. '믿기지 않는다' 혹은 '믿어지지 않는다'로 써야 한다.

① '보이다'는 '보-'에 접미사 '-이-'가 하나만 붙은 올바른 피동 표현이다.

② '복구됐다'는 명사에 '-되다'가 붙은 올바른 피동 표현이다.

④ '붙잡혔다'는 '붙잡다'에 피동 접미사 '-히-'가 붙은 적절한 표현이다.

⑤ '안겼다'는 '안다'에 피동 접미사 '-기-'가 붙은 적절한 표현이다.

11. [정답] ③

뉴스 보도에서 '확인됩니다'와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정보나 사실을 전달할 때 객관적인 느낌을

줄 수 있다.

① 피동 표현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, 과장과는 거리가 멀다.

② 피동 표현은 주체를 비난하기보다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.

④ 문장의 길이를 늘이려는 의도가 아닌 객관적인 느낌을 전달하려는 의도이다.

⑤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능동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은 아니다.

12. [정답] ⑤

'좋았다'는 남에게 동작을 당하는 의미를 가진 피동 표현이 아니다.

① '꺾다'에 피동 접미사 '-이-'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.

② '구속'에 '-되다'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.

③ '업다'에 피동 접미사 '-히-'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.

④ '신다'에 피동 접미사 '-리-'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.

13. [정답] ①, ⑤

① ㉠은 이미 피동 접미사 '-리-'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다. ㉠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'모기가 나를 물었다'로 '모기'가 주어가 된다.

⑤ ㉡은 피동 접미사 '-리-', ㉢은 피동 접미사 '-기-'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
② ㉣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'술래가 나를 쫓고 있다'이므로 적절하다.

③ ㉤은 주어인 '아빠'가 동생을 안는 행위를 하는 능동문이다.

④ ㉥은 '-어지다'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으로 나타내 자신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으려는 표현이다.